

2010년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인사랑당



### Yasunaga Komori (MD)의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 워크샵

-Narrative Approach to chronic illness" (만성질환을 이야기치료적 접근으로 다루기)

한스카운셀링센터에서는 2010년 한국과 일본의 학술 교류를 위해 “이야기치료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Yasunaga Komori (MD)는 일본 정신과의사이자 가족치료전문가로 현재 나고야에 있는 아이치 암센터 중앙병원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Michael White와 David Epston에 의해 고안된 이야기치료는 우선 내담자를 존중하고 치료 가운데 이 부분을 실천합니다. 외재화 작업이 바로 이런 내담자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요소들이야말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좁은 시야를 갖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모리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치료 워크샵에서는 암 투병중인 내담자들과 작업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심리교육 자료인 DVD “미스터 디프리를 인터뷰하기”(Interviewing M. Depre : 우울증의 외재화 작업)도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유방암 환자들과 함께한 치료적인 자료이며 고모리 선생님은 “Anti-Cancer League”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야기치료가 임상 장면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p>1985 기후의과대학 (Gifu University) 졸업 및 수련</p> <p>1990-91 Mental Research Institute in Palo Alto, California 에서 근무</p> <p>2006- 현재 psycho-oncologist(정신과 종양학), 아이치 암센터 중앙병원</p> <p>주연구분야 : 이야기치료, 정신과 + 종양학 Psycho-oncology</p> <p>학술지 : Geyerhofer, S. and Komori, Y. Integrating Poststructuralist model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Brief Therapy 4(1&amp;2, special double issue on the MRI approach 2005);103-122, 2005.</p> <p>저서출판 : Narrative Practice revisited (Kongo Shuppan, 2008, in Japanese), Palliative Time(Kongo Shuppan, 2010 in Japanese), etc.</p> <p>역서 : White and Epston’s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1992) White’s “Re-authoring lives” (2000), “Narratives of therapists’ lives” (2004), “Narrative practice and the exotic lives” (2007), and “Maps of Narrative practice” (2009), Hedtke and Winslade’s “Re-membering lives” (2005), etc.</p>
<p>Yasunaga Komori (MD)</p>	